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8년08월16일
(11) 등록번호 10-1889221
(24) 등록일자 2018년08월09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7G 9/10 (2006.01) A61H 39/04 (2006.01)
(52) CPC특허분류
A47G 9/109 (2013.01)
A47G 9/1045 (2013.01)
(21) 출원번호 10-2017-0050458
(22) 출원일자 2017년04월19일
심사청구일자 2017년04월19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130058426 A*
KR200373301 Y1*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고재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23번길 5-3, 102
동303호(마평동, 삼성빌라)
(72) 발명자
고재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23번길 5-3, 102
동303호(마평동, 삼성빌라)

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심사관 : 황경숙

(54) 발명의 명칭 베개

(57)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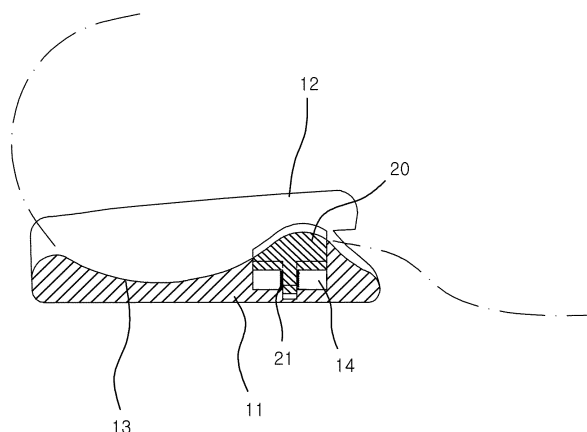
본 발명은 베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오목한 머리안착부의 양측에는 탄성을 갖는 날개판에 보조 받침부를 각각 구비하여 다양한 위치에서 취침이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목받침부를 스프링 쿠션으로 가압하여 지압효과에 의해 쾌적한 취침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발명된 것이다.

본 발명의 구성은 쿠션을 갖는 재질로 바닥면에 접하는 베이스판(10)의 중앙으로 지지기둥(11)을 세워지게 하고, 이 지지기둥(11)의 상부 양쪽으로 날개판(12)들이 일체로 성형되며,

이 날개판(12)들 사이 중앙에는 사용자의 머리 굴곡을 따라 머리안착부(13)가 오목하게 성형되고,

상기 머리안착부(13)로부터 곡면이 이어져 사용자의 뒷목부를 향해 돌출되는 목받침부재(20)가 상하 출몰되도록 수용홈(14)을 파내고, 스프링(21)으로 목받침부재(20)를 탄력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 표 도 - 도4



(52) CPC특허분류

A61H 39/04 (2013.01)

A61H 2201/1284 (2013.01)

A61H 2201/1609 (2013.01)

A61H 2201/1695 (2013.01)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쿠션을 갖는 재질로 바닥면에 접하는 베이스판(10)의 중앙으로 지지기둥(11)을 세워지게 하고, 이 지지기둥(11)의 상부 양쪽으로 날개판(12)들이 일체로 성형되며,

이 날개판(12)들 사이 중앙에는 사용자의 머리 굴곡을 따라 머리안착부(13)가 오목하게 성형되고,

상기 머리안착부(13)로부터 곡면이 이어져 사용자의 뒷목부를 향해 돌출되는 목받침부재(20)가 상하 출몰되도록 수용홈(14)을 파내고, 스프링(21)으로 목받침부재(20)를 탄력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베개.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날개판(12)과 베이스판(10)의 사이 공간에는 탄성스프링(30)이 더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베개.

발명의 설명

기술 분야

[0001] 본 발명은 베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오목한 머리안착부의 양측에는 탄성을 갖는 날개판에 보조 받침부를 각각 구비하여 다양한 위치에서 취침이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목받침부를 스프링 쿠션으로 가압하여 지압효과에 의해 쾌적한 취침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발명된 것이다.

배경 기술

[0002] 일반적으로, 베개는 잠을 자거나 휴식을 위하여 누울 때 머리에 괴는 물건으로서, 인체의 목을 받쳐주어 편안한 자세 및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침구류의 하나이다.

[0003] 통상, 베개는 일정한 규격의 높이로 제작되어 유통되는데, 사용자가 베개를 쓰면서 베개의 높이가 맞지 않음에 따라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0004] 즉, 종래의 베개는 사용자가 높이를 선택적으로 조절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으로 베개 사용의 불편함을 참으면서 그대로 사용하던지 또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높이의 베개를 구입하여야 한다.

[0005] 하지만, 자신의 상태에 맞는 높이의 베개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베개의 쿠션력이 저하되면서 높이가 낮아지는 등 변형이 초래되어 또 다시 불편함을 겪게 된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0006] (특허문헌 0001) 대한민국 실용신안 등록번호 제20-365801호(2004년10월15일 등록)

(특허문헌 0002) 대한민국 실용신안 등록번호 제20-243798호((2001년8월9일 등록)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 [0007] 그러나, 이러한 베개의 높이 조절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베개의 높이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베개 또는 높이조절장치의 기술이 지금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복잡함을 갖거나 안정적이지 못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용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 [0008] 나아가, 종래의 베개는 베개로부터 열이 많이 전달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오히려 안락한 휴식 및 수면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 [0009] 한편, 인간이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약 80%는 중추신경(뇌, 척수신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대인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여 안락한 생활을 하므로써 척추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0010] 인간은 대개 일생중 2/3는 깨어서 육체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1/3은 잠을 자게 되며, 하루 동안에 척추에 무리를 주는 노동과 운동으로 혹사당한 척추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자신의 체형과 맞지 않는 폭신한 베개를 사용함으로써 경추를 기형을 만들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 [0011] 본 발명의 목적은 머리의 중앙에는 굴곡라인을 따라 성형되면서 목받침부가 적정한 탄성력으로 목부분을 가압하여 신경안정 및 질병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베개를 제공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 [0012]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탄성이 양호한 양쪽 날개부에 보조 받침부를 더 형성하여 사용자의 선택으로 최상의 상태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한 베개를 제공하는데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 [0013]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쿠션을 갖는 재질로 바닥면에 접하는 베이스판(10)의 중앙으로 지지기둥(11)을 세워지게 하고, 이 지지기둥(11)의 상부 양쪽으로 날개판(12)들이 일체로 성형되며,
- [0014] 이 날개판(12)들 사이 중앙에는 사용자의 머리 굴곡을 따라 머리안착부(13)가 오목하게 성형되고,
- [0015] 상기 머리안착부(13)로부터 곡면이 이어져 사용자의 뒷목부를 향해 돌출되는 목받침부재(20)가 상하 출몰되도록 수용홈(14)을 파내고, 스프링(21)으로 목받침부재(20)를 탄력 설치하는 것에 의해 달성된다.
- [0016] 여기서, 상기 날개판(12)과 베이스판(10)의 사이 공간에는 탄성스프링(30)이 더 설치된다.

발명의 효과

- [0017] 본 발명에 따르면 중앙의 머리안착부와 그 양쪽으로 연장되는 날개판을 이용해 각각 취침이 가능하게 되는 데, 중앙에 취침할 때와 옆으로 누울 때 그 받침 높이와 쿠션 정도를 서로 다르게 선택할 수가 있다.
- [0018] 또,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는 목받침부재가 사용자의 뒷목을 적당한 탄력으로 가압하는 것에 의해 지압효과와 시원함을 동시에 느끼게 하여 쾌적한 상태로 깊은 숙면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 [0019] 도 1은 본 발명의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평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정면상태 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사용상태를 예시한 측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목받침부재에 지압돌기가 돌출되는 실시예를 보인 측단면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0020]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0021] 도 1 내지 도 5은 본 발명이 적용된 베개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 [0022] 즉, 본 발명은 쿠션이 양호한 합성수지재 또는 실리콘재로 정면에서 볼 때 대략 "I" 형상으로 바닥면에 접하는 베이스판(10)의 중앙 상부로는 지지기둥(11)가 수직하게 세워지고, 이 지지기둥(11)의 상부 양쪽으로 날개판(12)들이 일체로 성형된다.

[0023] 따라서, 양쪽 날개판(12)들은 중앙이 지지기둥(11)에 의해 받쳐지게 한 상태로 베이스판(10)과는 거리를 두고 그 사이에 공간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우수한 탄력성을 갖게 된다.

[0024] 또, 이 날개판(12)의 상부면은 완만한 곡면으로 성형되며, 지지기둥(11)에 근접된 위치와 끝단부에 머리가 위치될 그 탄성정도가 상이해지게 되므로, 사용자가 적당한 쿠션 위치에 접한 후 취침할 수 있도록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0025] 이때, 도 3에서와 같이 날개판(12)과 베이스판(10) 사이 공간에는 탄성스프링(30)을 더 설치하여 탄성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취침 효과면에서 더 좋다.

[0026] 탄성스프링(30)을 대신하여 쿠션이 양호한 메모리폼을 설치하여도 동일한 탄성효과를 갖게 됨을 밝혀둔다.

[0027] 한편, 본 발명은 상기 날개판(12)들 사이 중앙 위치로는 사용자의 머리 굴곡을 따라 머리안착부(13)가 오목하게 성형되어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뒷머리부를 편안하게 받쳐지게 한다.

[0028] 그리고, 이 머리안착부(13)로부터 곡면이 이어져 사용자의 뒷목부를 향해 돌출되는 목받침부재(20)가 설치되는데, 배게 몸체에 내부를 향해 수용홈(14)을 파내서 목받침부재(20)를 끼워 설치된다.

[0029] 또, 수용홈(14)의 내부에는 스프링(21)을 탄력 설치하여 상기 목받침부재(20)가 사용자의 목부분을 향해 탄력을 갖도록 한다.

[0030] 여기서 스프링(21)은 도 4 및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자유상태에서 목받침부재(20)가 몸체 상부 곡면으로부터 1-3 cm 돌출되는 정도로 설정되며, 사용자의 머리와 목부분이 접하게 되면 그 하중에 의해 수용홈(14) 내부로 출몰되면서 적정한 탄성력으로 목부분을 가압하게 되는 것이다.

[0031] 따라서, 피로가 집중되는 목부분을 가압, 지압하는 것에 의해 피로회복이 이루어지면서 깊은 숙면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0032] 이때, 목받침부재(20)의 상부면에는 작은 크기의 지압돌기(22)들을 더 다수개 돌출시키는 것이 지압 효과면에서 더 좋다.

[0033] 이 지압돌기(22)는 한의학에서 특정 질병에 지압하면 치료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위치에 돌출 성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0034]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질병 치료효과를 위해 이미 해당 지압위치로 지압돌기(22)들이 돌출된 것을 목받침부재(20)에 일체로 돌출시킨 상태로 목부분을 지압하는 상태로 취침하게 되면 취침중 특정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0035] 이러한 본 발명의 베개는 도 2에서와 같이 부드러운 직물지로 된 커버(1)로 외부를 감싸게 한 상태로 유통, 판매하게 된다.

[0036]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 예 및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함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 [0037] 본 발명은 베개 기술에 적용된다. 특히, 감촉과 쿠션이 다른 조건을 갖도록 하고, 목부분을 적당한 탄력으로 가압하여 지압효과도 얻을 수 있는 침구류에 적용된다.

부호의 설명

- [0038] 1 - 커버 10 - 베이스판

- 11 - 지지기둥

13 - 머리안착부

20 - 목받침부재

22 - 지압돌기
- 12 - 날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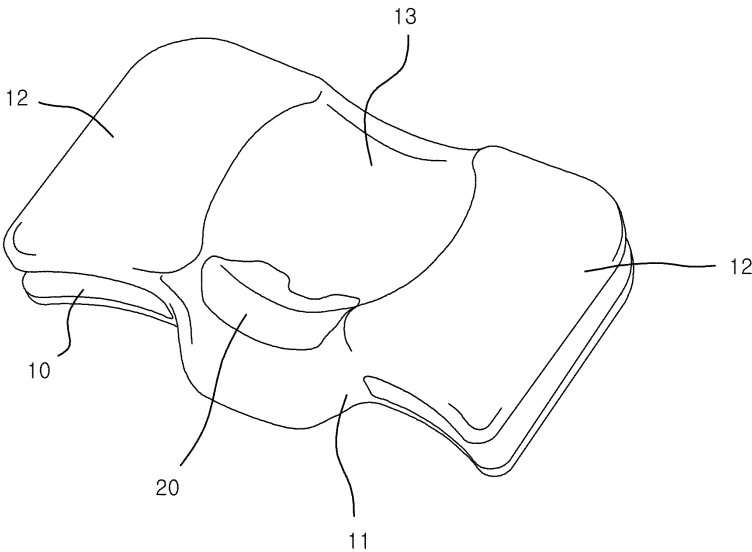
14 - 수용홈

21 - 스프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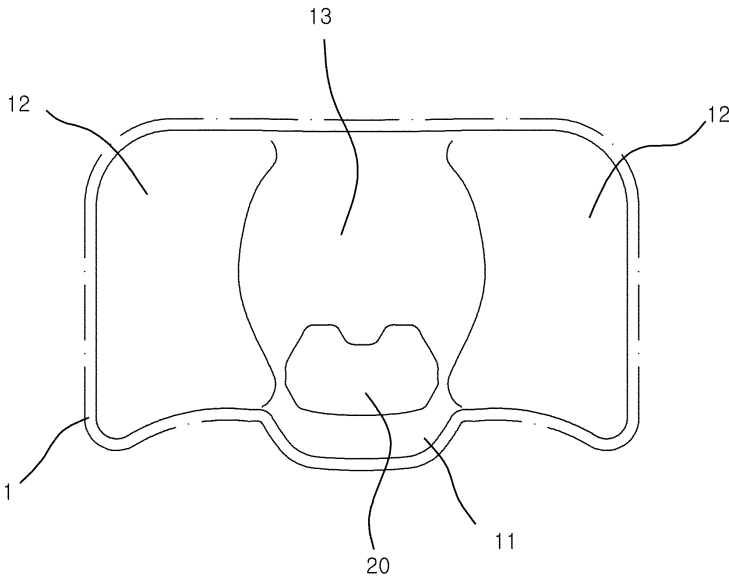
30 - 탄성스프링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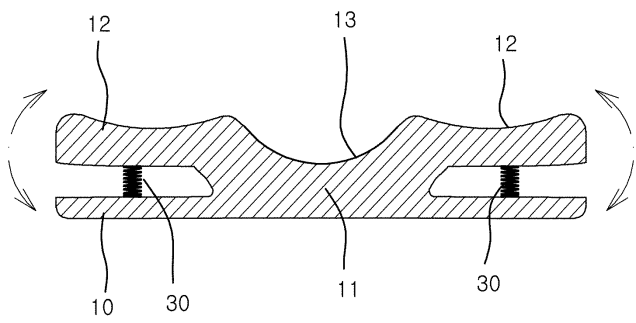
도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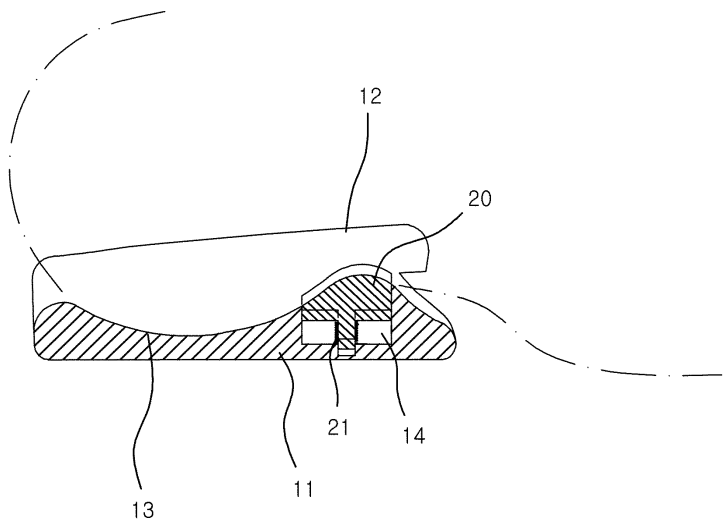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